간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지적 증가

학번: 21944937

이름: 팜티늉

학과: 일본어 일본학과

 “독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이다

 2005 년 3 월 16 일 일본 남서부의 시마네 현 정부는 한국 최동단에있는 독도가 주권하에 있다고 선언하고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라고 부르는 이름이며 시마네 현은 섬에 대한 국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선택했다.

 또한 1905 년 2 월 22 일 시마네 현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영토에 편입 한 사실을 기념하다. 일본의 이적 이전에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위의 어리석은 행동을 즉시 중단 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치열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2 월 22 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사용하고 연례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뿐만 아니라 일본은이 섬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서에 독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본 교육법을 계속 개정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영토 분쟁 발생이다.

 독도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섬인 울릉도에서 약 87.4κμ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독도는 동서도를 포함한 89 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곳은 한국 문화재 청이 ∍자연 유산∍336 호로 인정하고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매우 독특한 자연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한일 분쟁은 1952 년부터 시작됐다.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 조성렬 박사는“한일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언급은 당시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통과했던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에 접어 든 1951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불붙였다.특히 1952 년 1 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의 선∍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바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양국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한다.

해상 평화 선은 한반도 해안에서 200 해리 이내에있는 모든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물론이 항로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 영토에 속한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 한 평화 선과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조성룡 박사는“1951 년 9 월 체결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 한 후 연합군과 일본이 체결 한 평화 조약이었다. 항복해야합니다.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1949 년 12 월에 도입 된이 조약의 초안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거했다.그리고이 조약의 최종 초안은 독도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독도가 자신의 소유라는 증거로 첫 원고를 기반으로 한 도쿄이다. 더욱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아 일본이이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평화 선 선언문을 발표 한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일본 어선이 남한 해역과 독도에서 불법적으로 잡 혔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상 평화 선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어부뿐만 아니라 영토를 보호하고 선박을 배를하겠다는 근거를 내 세웠다. 어선과 순찰선이 동해로 나가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1953 년 7 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54 년 8 월 서울은 독도에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병을 파견하여 이곳의 작은 섬이 한국에 속함을 알렸다. 독도의 주권 분쟁에 이어 1965 년에 체결 된 한일 조약이라 불리는 한일 기본 관계 조약이 뒤 따랐다.

 1965 년 한일 조약으로 독도 논란이 종식 된다.

 1965 년 12 월 18 일,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주권에 대한 모순이 부분적으로 양국 간 비준 문서 교환으로 해결되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일본 출신 인 Ηοσακα Ψυϕι 교수는 현재 세종 대학교 독도 통합 연구원장을 맡고있다.“일본은 사실상 포기했다.1965 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이다.당시 도쿄에 있던 한국 대표단이 일본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그의 주권을 계속 주장하다.그리고 6 월 22 일 조인식이 열리기 전에 한국 측 대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하고 있다는 사실 서울

측의이 반응에 놀란 도쿄는 내부를 재빨리 수정했다.나머지 내용과 함께 한국의 서명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이익을 향한 조약의 독도에 이것은 비밀 일본어 성적표에 언급되었다.그래서 일본은 1965 년 독도에 대한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한다.

 도쿄는 1996 년부터 독도의 주권을 주장했다.

그 이후로 독도 문제는 30 년 동안 정지되어 1990 년대 중반에 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일본 교육부는 교과서에 독도를 영토로 표시했다. 1996 년 중, 고등학생, 같은 해 9 월 선거 운동에서 일본 자유 민주당은 독도의 주권을 되 찾겠다는 서약까지했다. Ηοσακα Ψυϕι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94 년에 많은 국가들이 ΥΝ 해양법 협약에 서명했습니다.이 개정 된 법은 해안선에서 200 해리 내의 배타적 경제 구역을 인정하다. 본토와 섬, 이것은 독도를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으로 만든다.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1994 년부터이 문제를 뒤집어 독도를 주권으로 주장했다.”

2000 년대 들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강화했다.정부는 2010 년부터 외교 그린 북에서 독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도쿄는 2013 년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며 지역의 축하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바꾸는 부장관과 의원의 수다.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의 주권 문제에서 그토록 단호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성룡 박사는“일본은 1990 년대부터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 해왔다. 특히 1995 년 이후로 독도에 대한 과거의 유물 폐쇄를 공식 선언 한 이후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고 외교 정책을 뒤집는다. 그 이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거듭 제기 해 국내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가이 문제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독도 주변의 해저에서 다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귀중한 불에 탄 얼음의 양은 약 10,000 억 톤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독도는 군사지도에서 중요한 위치로도 알려져 있다.조성룡 박사는“역사적으로 독도는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러시아 군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되는 망루로 사용되었다. 19 세기 초, 그렇기 때문에 도쿄는 항상 독도를 자국에 편입시키고 자했다. 한편,지리적으로도 독도는 2016 년부터 개통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을 연결하는 해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있다.따라서 독도는 거점이 될 수있다.동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조용한 외교”정책을 내세워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응했다. 조성렬 박사는“한국 정부는“조용한 외교”를 추구하고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도쿄가 1990 년대에 독도의 영토 편입을 반복적으로 요구 한 이후, 서울도 태도를 바꾸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찰이 영주권으로 파견되고 해안 경비대가 매일 순찰을하는 등 섬에 실제로 존재한다. 또한 독도의 영해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한 정부는 독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보장하고자한다.

 많은 고대 한국과 일본 서지에서 독도가 한국에 속해 있음을 증명이다.

 독도가 한국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15 세기 세종대왕 때 편찬 한 ∍세종 실록∍시리즈의 ∍지리지∍(지리)였다. 조선 시대). 조성룡 박사는“1454 년 세종 시대에 편찬 된 지리 책에는 우산 도와 무릉도라는 두 개의 작은 섬이 멀지 않은 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각 섬에서 볼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에서 1 년에 40 ∼ 50 일 정도면 관찰 할 수있다.한편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에서는 관찰 할 수 없다.

 16 세기에 편찬 된 지리 책인 신증 동국여지승람 (동해 동해 왕국 추가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독도 기록은 일부 고대 한국어 텍스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독도 문제가 고대 일본 문헌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성룡 박사는 ∀독도에 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책∀인도−유럽 회의에있다 ∀고 말했다. 이 가장 오래된 일본 문서는 오키섬이 일본 북서쪽 경계의 랜드 마크로 간주되었다는 1667 년에 편집 된 독도를 언급핟.근대에 발행 된 ∀왕세자 지침∀이라는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일본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 또한 1900 년 10 월 조선 고종 은 죽도라는 이름의 독도와 석도는 울릉도의 관할에 속한다는 법령 제 41 호를 발표했다.

 또한 많은 고대 일본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종 대학교 독도 통합 연구원 Ηοσακα Ψυϕι 소장은“많은 고대 일본지도는이 나라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독도는 18 세기에도 막부 시대에 출판 된 공식지도에서도 생략되었다.일본 지리학자 하야시시 헤이가 1785 년에 발표 한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시대에 속하며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800 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 특히 산업 경제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제 여러 공식지도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러시아 이름으로 불리며 한반도와 비슷한 색으로 표현된다. 또한 1905 년까지 발행 된 시민지도는 여전히 독도가 조선 왕조의 울릉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출하고 독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계속 추구하고있다.

 독도−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의 상징이다

 독도는 천연 자원의보고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다.그게 뿐만 아니라 섬은 한국 영토의 동해와 동해를 지키는 ∀군인∀과도 같다.태극기 (태국 극단)의 태극기는 한국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이곳 절벽에서 여전히 펄럭이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독도의 자연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다. 독도에는 40 명의 독도 경비원과 3 명의 등대 경비원과 함께 민간인이 거주하고있다.또한 독도는 한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을받는 곳이다.

보호를 위해 독도는 자연 기념 제 336 호 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매년 10 만 명관광객이 방문 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독도는 해양 동식물과 놀라운 경관의보고다.화산 용암으로 인해 동해에 자리 잡은 독도는 모든 종류의 식물에 매우 좋은 서식지이며 최대 50-60 종의 식물이 번식하다. 동해를 건너 고자하는 새들의 안식처이기도 한 이곳은 스위프트 알바트 로스, 플라밍고, 물수리 등의 새를 볼 수 있으며, 온류와 한류의 교차점이기도하다.다양한 어류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보고 인 부유 생물 (바다 이끼 등)이 많이 있다.

천연 자원의 보물 인 독도 풍부한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독도의 자연미를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는 환경 친화적 인 방법이다.

 THE AND